

사람이 희망입니다.

KRIVET Issue Brief

2017

137호

발행인 나영선 | 발행일 2017년 12월 21일 |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학위취득자의 지역별 수급 현황

- 신규 박사학위취득자는 연평균 3.2%의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경기·인천·강원 지역(6.0%)과 충청권(4.2%)의 증가율이 두드러짐.
- 취업한 박사학위취득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3.1%로 공급(3.2%)에 비해 다소 낮으나, 충청권(8.4%)과 경기·인천·강원 지역(5.5%)은 공급의 증가율을 상회하여 성장하고 있음.
- 신규 박사학위취득자의 경우, 서울 지역은 공급 비중(45.9%)에 비해 수요 비중(33.5%)이 적은 데 비해 경기·인천·강원 지역과 충청권, 영남권은 공급 비중에 비해 수요 비중이 높음.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가 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박사학위소지자의 지역별 인력 수급 분석을 통해 고급인적자원 개발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은 분야별 융합과 제조업 혁신을 통해, 산업구조의 전반적 변혁을 예고하고 있으며 고급 인적자원이 더욱 중요해짐.
 - 다보스포럼(2016)에서는 7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견함.
 - 생산직 및 단순 사무직 등 단순 업무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전문 기술직 등의 고학력 직종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음.
- 대졸자에 대한 인력수급분석은 많으나, 박사학위소지자와 같은 최고급 인적자원의 수급에 대한 분석은 전무함.
 - 지역별 박사학위 소지자의 배출 실태와 취업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별 인적자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함.
 - 지역균형 발전과 인력수급의 변화를 반영한 박사학위 과정의 지역별 공급 조정이 필요함.

| 분석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3~2017)」,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 실태조사(2013~2017학년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2013~2017)」

- 분석 자료: 신규 박사학위취득자 수는 한국교육개발원의 2013~2017년 「교육통계연보」, 박사학위취득자의 취업 관련 분석은 통계청의 2013~2017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신규 박사학위취득자의 취업 관련 분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13~2017학년도 「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함.
 - 「지역별고용조사」 자료 분석 시 가중치를 활용하여 대표성을 확보함.
- 분석 대상: 만 65세 이하의 박사학위취득자(단, 「교육통계연보」의 신규 박사학위취득자 수에 연령 정보가 없어 전체로 분석함.)

02 신규 박사학위취득자 공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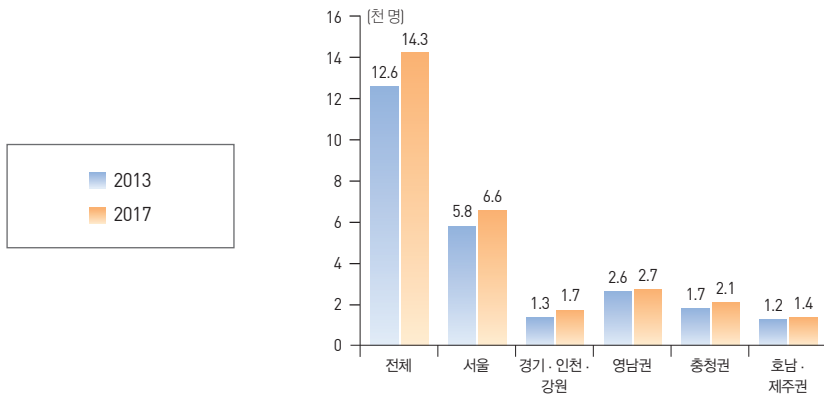
| 신규 박사학위취득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인천·강원과 충청권에서 빠른 증가세를 보임.

- 전체 신규 박사학위취득자 수는 2013학년도 약 1만 2천 6백 명 → 2017학년도 1만 4천 3백 명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3.2%씩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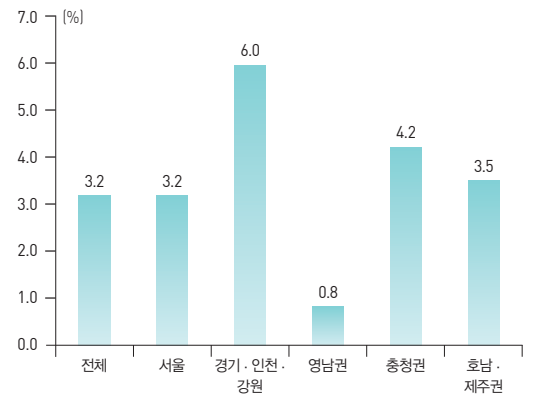


KRIVET 모바일용

- 지역별로는 2017학년도에 서울 소재 대학원에서 6천 6백 명의 박사를 배출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영남권 대학원이 2천 7백 명, 충청권 대학이 2천 1백 명, 경기·인천·강원은 1천 7백 명, 호남 및 제주 지역은 1천 4백 명의 박사를 배출함.
- 모든 지역에서 신규 박사학위취득자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경기·인천·강원과 충청권은 2013년 대비 2017년에 각각 350명, 300명가량이 증가하여 연평균 6.0%, 4.2%씩 빠르게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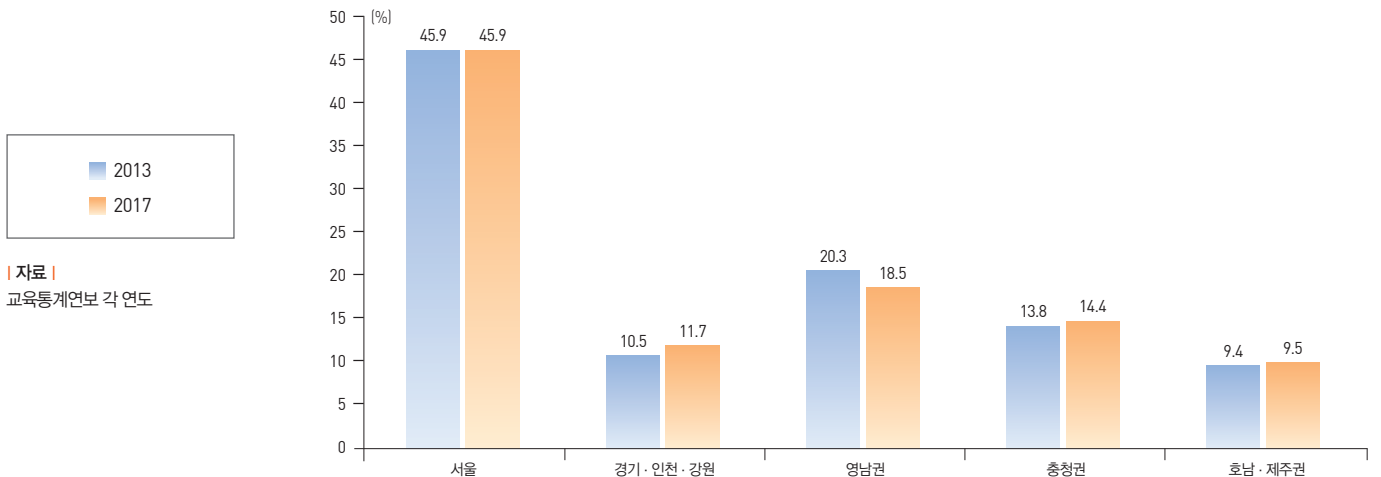
[그림 1] 지역별 신규 박사학위취득자 수



[그림 2] 지역별 신규 박사학위취득자 연평균 증가율

매년 신규 박사학위취득자의 절반 가까이를 서울에서 배출하고 있음.

- 신규 박사학위취득자의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서울 소재 대학원이 45.9%로 신규 박사학위취득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며, 그 다음은 영남권(18.5%), 충청권(14.4%), 경기·인천·강원(11.7%), 호남·제주(9.5%) 순임.
- 영남권 대학원은 2013년 대비 2017년에 신규 박사학위취득자 비중이 다소 줄어들음.



[그림 3] 신규 박사학위취득자 지역별 비중

자료 |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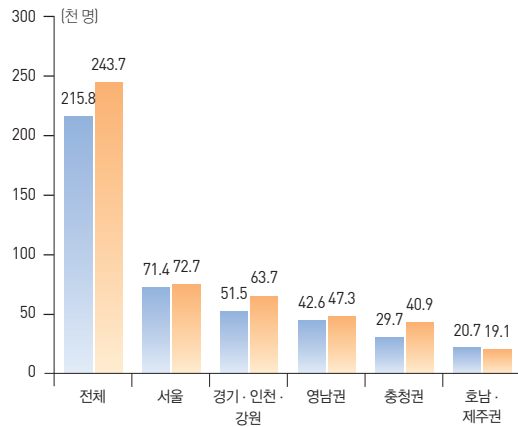
03 박사학위취득자 수요 현황

지난 5년 간 호남·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박사 취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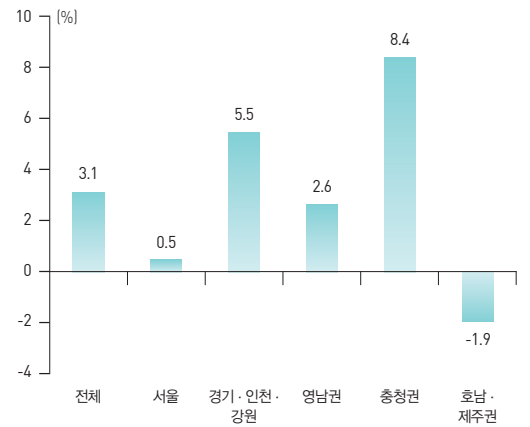
- 박사학위가 있는 취업자는 24만 3천 7백 명이며, 2013년 21만 5천 8백 명 대비 2만 7천 9백 명 증가함. 연평균 증가율은 3.1%로 신규 박사학위취득자 연평균 증가율 3.2% 보다 낮음.
- 지역별로는 서울에 취업한 박사학위취득자가 7만 2천 7백 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경기·인천·강원 지역이 6만 3천 7백 명, 영남권이 4만 7천 3백 명, 충청권은 4만 9백 명, 호남·제주는 1만 9천 1백 명 순임.
- 호남·제주 지역의 박사 일자리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9% 감소하였으나, 충청권과 경기·인천·강원은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8.4%, 5.5%로 고급 인력의 일자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자료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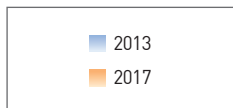
[그림 4] 직장 소재지별 박사학위취득자 취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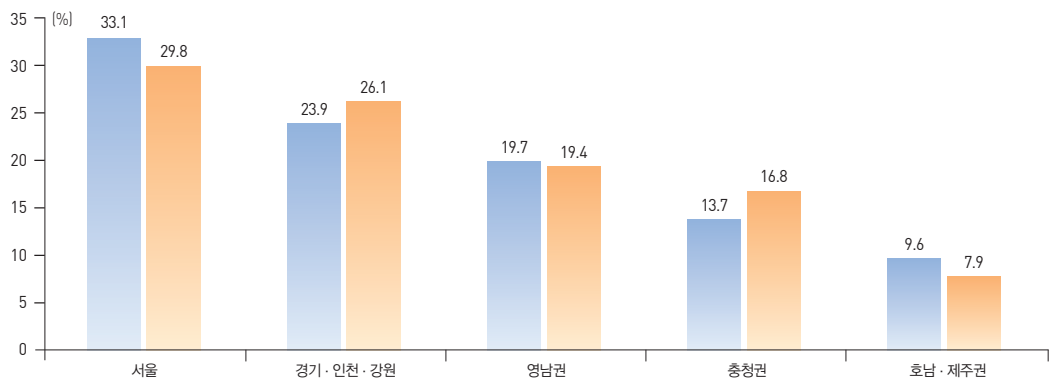
[그림 5] 직장 소재지별 박사학위취득자 취업자 수 연평균 증감률

박사 취업자 중 근무지가 서울인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 최근 5년간 그 비율이 다소 감소함.

- 박사학위를 취득한 취업자 중 서울에서 직장을 구한 경우가 29.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경기·인천·강원(26.1%), 영남권(19.4%), 충청권(16.8%), 호남·제주권(7.9%) 순임.
 - 박사 일자리 비중은 서울과 호남·제주권이 각각 3.3%p, 1.7%p 감소하였으며, 충청권은 3.1%p, 경기·인천·강원은 2.2%p 증가함.



자료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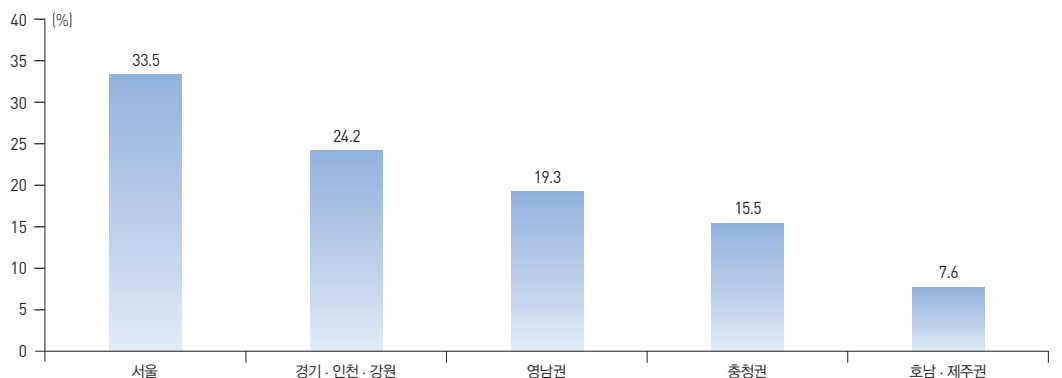


[그림 6] 직장 소재지별 박사학위취득자 비중

- 2017학년도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취업자의 33.5%가 서울에 취업하였으며, 그 다음은 경기·인천·강원(24.2%), 영남권(19.3%), 충청권(15.5%)이고, 호남권은 7.6%에 불과함.
 - 전체 박사학위취득자와 신규 박사학위취득자의 직장 소재지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남.

주 지역은 직장 소재지 기준임. 해외 취업자는 제외함.

자료 2017학년도 국내신규박사학위 취득자 실태 조사



[그림 7] 직장 소재지별 신규 박사학위취득자 비중

신규 박사학위취득자의 공급이 박사 노동시장의 수요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신규 박사학위취득자의 공급과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를 비교하면, 서울은 전체 박사학위취득자의 45.9%를 공급하나 신규 박사학위취득자 일자리 비중은 33.5%, 전체 박사학위취득자의 일자리 비중은 29.8%로 박사 공급이 더 많음.
 - 반면, 경기·인천·강원은 신규 박사학위취득자의 11.7%를 공급하나 박사 일자리 비중은 20%대 중반으로 수요가 더 많음.

〈표 1〉 박사학위취득자의 지역별 수급 비중

(단위: %)

	신규 박사학위취득자 공급 비중	신규 박사학위취득자 수요 비중	박사학위취득자 수요 비중
서울	45.9	33.5	29.8
경기·인천·강원	11.7	24.2	26.1
영남권	18.5	19.3	19.4
충청권	14.4	15.5	16.8
호남·제주권	9.5	7.6	7.9
합계	100	100	100

자료

신규박사학위취득자 공급 비중은 '교육통계연보(2017)', 신규박사학위취득자 수요 비중은 2017학년도 '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 실태조사', 박사학위취득자 수요 비중은 '2017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한 신규 박사학위취득자 절반가량이 대학원 소재지와 같은 지역에 취업함.

- 서울에 있는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취업자의 55.8%가 서울에 취업하며, 경기·인천·강원에는 24.4%가 취업함. 즉, 80%가 수도권 지역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인천·강원 지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취업자의 절반가량이 해당 지역에 취업을 하며, 24.6%가 서울에 취업을 함. 수도권에 취업하는 비율이 74.8%임.
 - 영남권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취업자의 경우 61.1%가 영남권에 취업을 하며, 경기·인천·강원에는 14.7%, 서울에는 12.3%가 취업함.
 - 충청권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취업자의 47.9%가 충청권에 취업을 하며, 수도권에 취업하는 비율이 영남권이나 호남·제주권 보다는 높게 나타남.
 - 호남·제주권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취업자의 61.7%가 호남권에 취업을 하며 다른 지역에 비해 수도권에 취업하는 비율이 낮은 편임.

〈표 2〉 학교 소재지별 신규 박사학위취득자의 직장 소재지

(단위: %)

학교 소재지 \ 직장 소재지	서울	경기·인천·강원	영남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전체
서울	55.8	24.4	7.8	9.7	2.4	100
경기·인천·강원	24.6	50.2	9.5	11.7	4.0	100
영남권	12.3	14.7	61.1	9.7	2.2	100
충청권	18.9	18.9	9.3	47.9	5.0	100
호남·제주권	11.6	9.2	8.4	9.2	61.7	100

자료

2017학년도 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 실태조사

04 시사점

-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급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집중되는 현상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권역별 박사인력 공급 정책의 수립을 통한 지원이 필요함.
- 박사학위취득자의 절반 이상이 같은 지역에 취업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역의 인력 수요와 연계한 공급 정책 수립이 필요함.
- 향후 지역의 산업 발전 계획과 고급 인력 수급 실태를 연계하여 미래 수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 종합적 분석이 필요함.
- 이 분석에서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제외되어 있으며, 또한 외국으로 취업한 경우도 제외되어 있어 박사학위소지자의 수급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미래 사회에 국가 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고급인적자원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박사학위소지자의 인력 수급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의 확보와 분석이 필요함.

유한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이은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김혜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